

국내·외 업계 동향

□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종합방재센터 설치 추진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다원화된 재난복구체계를 소방중심으로 일원화해 통합운영함으로써 재난·재해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과 정보수집을 통한 효율적 복구를 위해 첨단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춘 서울종합방재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이 종합방재센터는 그간 소방·재해·사고대책본부를 부서별로 독립적으로 설치, 운영함으로써 공조 체제의 유지가 어려웠고 정보처리 지연으로 긴급조치의 차질을 초래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상황실(소방·재난·재해·전기·가스·수도)과 전산정보시스템(119종합방재시스템, 재난관련 정보시스템, 민방위경보통제시스템, 국가안전관리 시스템)이 일원화된다.

□ '99 선진국 보험시장 전망

최근 스위스리가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위스 등 7개국의 내년도 보험산업을 전망한 결과 이태리는 가장 높은 성장률을, 일본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됐다.

28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내년도 세계보험시장은 미국과 유럽의 경기 활황으로 보험료 규모가 올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수입 보험료 성장률이 GDP(국내 총생산)증가율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 S&P사, 세계 주요 보험사 등급 발표

Standard&Poor's사가 '97회계년도 기준 자료로 발표한 세계 200대 보험사 중 1위는 1996년 기준 순수입보험료 107억달러인 일본의 동경해상이 차지하였다.

상위 10개사의 수입보험료는 860억달러로 전체 보험사 수입보험료의 30%에 달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삼성, 현대, LG는 각각 38, 63, 67위에 랭크되었다.

□ 일단 정지형 방화셔터 개발

일본셔터공업회는 방화셔터의 오작동 문제해결을 위한 「방화셔터폐쇄작동시의 위해방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책정하였다. 가이드 라인에서는 방화셔터 본래의 역할, 기능의 주지와 위험성의 주지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사고방지책으로 음성발생장치, 장해물감지장치(일단정지기능 付)에 대해서도 촉구하고 있다.

□ 영국, 방화로 인한 보험금 연 7,500만 £

영국 방화예방협회 연차세미나에서 지난 10년간 방화건수가 두배 이상 증가했고 매월 1백만파운드를 초과하는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발표.

여기에 사업중단보험의 지급보험금이 부가되면 연간 지급보험금은 7천5백만파운드에 달한다.

□ 월드컵보험 14억\$

2002년 월드컵이 사상 최대 국제스포츠행사로서 거대 보험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행사 취소나 연기, 정치위험, 자연재해, 행사기간 중 각종 시설물에 의한 인명피해, 선수 사상시 주최측 책임을 보험사가 대신 보상하는 것이다.

FIFA측이 보험프로그램에 14억달러를 계상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내 손보사들도 국내보험을 유치하는 문제를 놓고 연구 중이다.

□ 제조물 배책보험

국내에서도 2001년에 PL법이 시행됨에 따라 손보업계는 최소 3천억원으로 추정되는 제조물배상책임보험(PLI) 시장확보를 위해 부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PLI는 규모가 큰 만큼 리스크도 높아 언더라이팅 전문화, 요율시스템 구축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일본, 리스크관리보험 개발

미국 란바멘즈와 일본 住友해상은 보험회사와 고객인 기업이 상호협조, 기업의 공장 운영상 리스크에 따른 손해방지와 경감을 목적으로 한 고객지향형 상품인 고도 리스크 매니지먼트 제공형 화재보험을 공동 개발, 일본 전역에서 시판에 들어간다.

기업의 고도 방재 엔지니어링 요소를 진단·체크, 개선도에 따라 보험료에 반영하는데, 리스크 방지·경감작업 후 최종 보험료를 30~40% 할인해 준다. 옥내·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설치시설도의 보험료 할인이 있다.

□ 미국, 허리케인으로 인한 손해 500억\$

아크라이트상호보험사가 미국 댤러스에서 가진 미기상학협회 연차총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허리케인으로 인한 추정손해가 최대 5백억~1천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이는 지난 90년~96년까지 발생한 허리케인 손해를 기초로 컴퓨터시뮬레이션한 결과로서, 자산가치의 증가와 해안지역의 인구집중으로 인해 허리케인에 의한 대형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 중동 화재, 안전, 보안 박람회

1999년도 『중동 화재, 안전, 보안 박람회』(MEFSEC 99)가 이집트 카이로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오는 3월 7일부터 3월 9일까지 개최된다.

이집트 방화협회(EFPA)가 주관하는 금년 박람회는 재해 예방 및 보안 기술의 발전, 방화, 안전 및 보안 분야에 대한 국내외 투자 촉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년 박람회에서는 화재, 치안, 보안, 작업장 안전 및 구조 등이 주요 주제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 월드 파이어 2000

『월드 파이어 2000 회의』가 2000년 4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 독일 루드비그sha펜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위험시설 및 위험물질, 건물 화재안전, 소방업무, 비상계획, 환경 영향, 교육, 규제 문제 등이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는 여섯 번의 워크샵이 예정되어 있다.